



제주 유기·유실 반려동물 절반은 안락사

안락사 비율 50% 육박… 입양은 10마리 중 2마리
보호관리시설 포화상태 해소·입양문화 확산 시급

제주에서 유기·유실된 반려동물의 절반이 안락사됐고, 20%가량은 수송과정이나 보호·관리중 폐사했다. 10마리 중 5마리는 안락사, 2마리는 자연사, 그리고 나머지 2마리만 입양되는 실정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유실 반려동물은 연도별로 ▷ 2021년 5364마리(개 4517, 고양이 847) ▷ 2022년 4977마리(개 4122, 고양이 855) ▷ 2023년 4452마리(개 3643, 고양이 809) ▷ 2024년 3886마리(개 3164, 고양이 722) ▷ 2025년 3456마리(개 2736, 고양이 720) 등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센터가 보호·관리 중 안락사된 비율은 전국평균(2024년 18.5%)을 넘어 매년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2021년 48.7%, 2022년 49.6%, 2023년 45.1%, 2024년 49.5%, 2025년 47.9% 등이다.

지난해 센터가 보호·관리하던 3710마리 가운데 개 1654마리(44.6%)와 고양이 124마리(16.7%)가 안락사됐다. 또한 유기·유실 상태에서 수송 중 자연사를 하는 사례도 817마리(22.2%)로 적

잖았다. 개는 249마리(7.5%), 고양이는 528마리(72.5%)였다. 주인의 품에 다시 안긴 개는 194마리(6.5%), 고양이는 3마리에 불과했다. 입양·기증은 개 787마리(26.5%), 고양이 125마리(16.8%)였다.

이처럼 입양·기증보다는 대체로 센터에서 전염병이나 폐사 등으로 안락사를 당하거나 자연사가 10마리 중 7마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안락사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2~3배 가량 높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시설 확대 등이 요구된다. 시설 포화로 매년 3000마리 이상의 유기·유실 반려동물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유기·유실 반

려동물 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제2동물보호센터를 개관했다. 센터는 보호·치료·입양·돌이·장묘까지 이어지는 통합 동물복지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센터는 기존 제1동물보호센터의 수용 포화로 인한 불가피한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유기동물의 건강관리 강화와 입양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유기·유실 반려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39마리에 대해 8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내용은 질병 진단·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미용, 보험료 등 최대 25만원 한도다.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t 트럭 수로에 빠져 60대 운전자 사망

A씨는 당시 차량 내부에 몸이 끼어 심경지 상태로 구조됐다.

지난달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8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서 1t 트럭이 수로로 추락해 60대 남성 A씨가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가건물서 불…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가건물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한 가건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인근으로 연기가 퍼지면서 동일 신고가 26건 접수됐다.

건물은 샌드위치판넬 형태의 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차귀도 해상 낚시어선 침수… 인명피해 없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침수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28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쪽 4.6k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기관실 침수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사고 어선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7명이 타고 있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우도 승합차 사고 운전자 5초 전부터 가속 국과수, 차량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작동 확인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사고 직전부터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운전자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하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돌진 사고로 사상자 14명(사망 3, 부상 11)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금탁기자



백사장 점령한 랭생이모자반 1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 제주바다의 불청객인 랭생이모자반이 쌓여있다. 강희민기자

배터리 열폭주 추정 화재… 전동카트 1대 전소

제주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전동카트 화재가 발생했다.

고가 접수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신고 접수 10분만인 0시 57분쯤 완전히 꺼졌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전동카트는 전날 새벽 0시 47분쯤 서귀포시 일주서로에 위치한 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카트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신

소방은 이번 화재가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전동카트 1대가 전소하면서 55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주심직원의 신속한 회수율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